

김연아, 그랑프리 3연패 '성공 예감'

오늘 밤 프리스케이팅서 '필살기 점프' 감동 연기 아사다 마오와 맞대결 ... 파격행보 안도 '다크호스'

피겨 GP 파이널 대회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2008~2009 SBS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을 통해 또 한 번 국내 피겨팬들에게 감동의 연기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김연아는 12일 밤 8시15분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13일 밤 8시5분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 도전에 나선다.

12일 끝난 쇼트프로그램은 최대 2분50초 동안 주어진 8가지(점프 3개, 스핀 3개, 스텝 1개, 스파이럴 1개) 과제를 누가 더 완벽하게 소화하느냐를 따지는 경기. 13일 벌어지는 프리스케이팅은 최대 4분 동안 12가지 과제(점프 7개, 스핀 3개, 스텝 1개, 스파이럴 1개)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돼 쇼트프로그램보다 점수 배정이 훨씬 높다. 프리스케이팅 최고점 역시 김연아(133.70점)가 가지고 있다. 특히 점프 과제가 7개나 되는 만큼 점프에서 2, 3번만 빠듯한다면 바로 하위권으로 추락하지만 완벽하게 된다면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각자의 '필살기 점프'를 포함해 고득점을 노린다.

더불어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 시작 2분이 지난 이후부터 뛰는 점프에는 기본점에 10%의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 것도 점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포인트 사냥에 나선다.

이에 맞서는 아사다 마오는 역시 프리스케이팅 첫 과제로 선택한 트리플 악셀과 이어지는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더블 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승부를 건다.

트리플 악셀은 성공만 하면 기본점이 8.2점이

고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는 기본점이 9.5점이나 된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감점이 1.4~4.2점까지 줄 수 있어 완벽함이 생명이다.

성공률이 낮지만 안도 미키(21·일본)의 쿼드러플 살코(기본점 10.3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아사다 마오 우승 대결 구도에 다크호스로 자리잡은 안도 미키가 자신의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바꾸는 모험에 나선 것도 관심거리다.

보통 선수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시즌을 뛰지만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 하지만 안도는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을 향한 집념으로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바꿨다.

안도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때도 쇼트프로그램을 바꿔서 출전했지만 부상이 겹치면서 중도에 대회를 포기하는 씁쓸한 경험을 했다.

안도의 원래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은 발레곡인 지젤. 하지만 함께 대회에 출전한 나카노 유카리(23·일본)도 똑같은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안도는 생상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을 선택해 11일 첫 훈련부터 새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가 12일 오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최종 드레스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입단 100번째 출격 지성, 축포 쏜다

14일 토트넘전 선발 예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산소탱크' 박지성(27)이 두달 가까이 중단된 득점포가 돌아온다.

맨유는 14일 새벽 2시30분(이하 한국시간)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토트넘 홋스퍼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다.

올 시즌들어 측면 공격수로 주전을 확실하게 꿰찬 박지성의 선발 출격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한 뒤 100번째 치르는 공식경기다. 맨유 홈페이지의 선수 소개란을 보면 박지성은 지금까지 9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지성은 올 시즌 어느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로 루이스 나니를 제치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거듭났다. 최근에는 크

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왼쪽에, 박지성이 오른쪽에 서는 경우가 많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수비 가담이 좋은 박지성을 공격 본능이 넘치는 오른쪽 윙백 하파엘 다실바와 호흡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도 공격수로서 골이 너무 없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 9월21일 첼시와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두달 가까이 골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박지성은 그동안 많은 찬스를 잡았지만 끝론 앞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토트넘전이 끝나면 박지성을 비롯한 맨유 선수들은 일본으로 이동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출전한다. 맨유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박지성이 이번 토트넘전에서 골 부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프로데뷔 무대였던 일본에서 다시 한번 이름값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브로 : 아스날(21 : 30·MBC ESPN)

14일 (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선더랜드 : 웨스트브롬위치>(00 : 00·MBC ESPN)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 맨체스터Utd>(02 : 30·MBC ESPN)
▲2008 PGA 메릴린치 슛아웃 2R(06 : 00·SBS골프·SBS스포츠)

▲NH 농협 08/09 V리그 (13 : 4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 <동부 : LG>(14 : 50·SBS스포츠), <KCC : 모비스>(14 : 45·X-SPORTS), <삼성 : 전자랜드>(17 : 00·MBC ESPN)

15일 (월)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첼시 : 웨스트햄>(01 : 00·MBC ESPN)

▲세리에 A <유벤투스 : AC밀란>(04 : 00·MBC ESPN)



미셸 위 '침통'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웨스턴오픈에서 합격을 받은 위정미가 12일 오후 조부 위상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장흥 출신인 위상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공학 박사로서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 10일 밤 10시에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연합뉴스

'숨주먹' 한국 아마복싱

러 월드컵대회 전원 탈락

한국 복서들이 아마추어 복싱 왕중왕 대회에서 조기 탈락했다.

조덕진(25·상무)은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스포르츠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복싱 미들급(75kg) 1차전 준준

결승에서 안드러나 하코브얀(아르메니아)에게 4-19로 판정패했다.

총상금 22만 달러를 놓고 11체급 초창복서 88명이 겨루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웰터급(69kg) 김정주(27·원주시청)와 조덕진 등 2명만 참가했다. 김정주가 지난 11일 첫 경기에서 2-10으로 판정패한 데 이어 조덕진마저 8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국은 전원 1차전 탈락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남겼다. /연합뉴스

김동주 일본행 '급물살'

NPB, KBO에 신분조치 요청 ... 지바 롯데 등 거론

두산베어스의 강타자 김동주(32)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일본야구 기구(NPB)로부터 김동주에 대한 선수 신분조치 요청을 받고 이를 소속 구단인 두산베어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분조치 요청은 일본 프로구단이 김동주 영입에 대한 공식 작업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김동주의 일본행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주는 지난해에도 시즌 직후 일본 진출을 모색했지만 NPB로부터 신분조치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 당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김동주는 두산으로부터 4년간 62억원을 제안받았지만 일본 진출을 위해 이를 거절하고 일본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김동주는 그러나 올 시즌을 앞두고 1년간 연봉 7억원, 옵션 2억원 등 9억원에 일본행을 희망할 경우 구단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붙여 두산과 재계약하며 일본행 희망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김동주는 올 시즌 종료 직후 구대성(한화)과 진필중(전 LG)의 해외 진출을 추진했던 더글러스 조(한국형 조동운)를 공식 에이전트로 삼아 일본 무대를 노크해 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김동주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구단은 지바 롯데와 오릭스 버펄로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170kg 윤정수 '덩치값' 했다

김기태 꺾고 세번째 황소 트로피

남해통합장사대회

60kg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윤정수(수원시청)가 12일 경남 남해체육관에서 열린 2008 남해통합장사대회 백호·청룡통합장사 결승전에서 60kg이나 덜 나가 김기태(현대삼호중공업)의 돌풍을 3-2로 잠재웠다.

윤정수는 올해 설날장사대회와 추석장사대회에 이어 마지막대회에서 세번째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최강의 자리를 확인했다.

190cm의 키에 170kg이 나가는 윤정수는 가장 무거운 체급인 청룡급의 1인자였고 185cm인 김기태는 한 체급 아래인 백호급에서 뛰는 선수였다. 김기태의 이날 체중은 110kg이었다.

이번 대회까지 대한씨름협회 민속위원회가 주최한 세번째 백호·청룡통합장사전에서 백호급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 것은 김기태가 처음이었다.

김기태는 첫번째에서 힘으로 밀고 들어오

는 윤정수의 힘을 역이용해 모래판에 누이면서 관중의 탄성을 이끌어 냈다.

반격에 나선 윤정수는 안다리로 맞선 김기태를 그대로 눌러 1-1을 만들었고 다음판도 배지기로 따내 리드를 잡았다. 김기태는 넷째판을 안다리로 따내며 대이변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거구를 상대하느라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윤정수는 마지막 판에서 김기태의 안다리를 피해 밀어치기로 승부를 마무리하며 선전을 펼친 김기태의 손을 잡아 주었다.

윤정수는 13일 대망의 천하장사대회 8강에도 올라가 있어 4년만의 천하장사 타이틀과 대회 2관왕을 함께 노린다.

◇백호·청룡통합장사 결정전 순위 ▲장사=윤정수(수원시청) ▲1품=김기태(현대삼호중공업) ▲2품=정원식(안산시청) ▲3품=백성욱(용인백옥쌀) ▲4품=황규현(현대삼호중공업) ▲5품=도상수(구미시청) ▲6품=김승현(연수구청) ▲7품=이광태(마산씨름단) /연합뉴스



13일 (토)

▲2008 PGA 메릴린치 슛아웃 1R (05 : 00·SBS골프·SBS스포츠)

▲광주·전남 아마추어 고교클럽 축구대회 결승전(13 : 10·MBC)

▲2008 남해장사씨름대회 천하장사(14 : 00·KBS1)

▲NH 농협 08/09 V리그 (14 : 4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 <전자랜드 : 모비스>(15 : 00·MBC ESPN), <KT : KT&G>(15 : 40·SBS스포츠), <KCC : 오리온스>(14 : 45·SBS스포츠)

▲08-09 ISU 그랑프리 피겨 파이널 여자 쇼트 프로그램-김연아 출전(19 : 00·SBS스포츠)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미들스